

보도 시점 2026. 4. 7.(화) 12:00 배포 2026. 4. 7.(화) 09:00
(2026. 4. 8.(수) 조간)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 확정

- 서울시 25개 구 포함 63개 지방정부 407개 구역/6,098억 원 규모 정비사업 추진
- 지나치게 밀집되거나 늘어난 방송·통신케이블, 끊어진 채 방치된 폐·사선 정비
- 공중케이블 재난립 방지를 위한 「공중케이블 청정 구역(클린존)」 종합 정비 시범사업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38차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은 지방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정비사업자) 등이 참여하며, 도로나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얽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전선이나 방송·통신용 케이블 등을 한데 묶거나 사용하지 않는 케이블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26년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지방정부*의 407개 정비구역에서 전주 130,910본(한전주 98,805본, 통신주 32,105본)을 정비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지방정부 단위 물량 배정 시 주택(단독, 다세대, 연립) 가구 수와 노후주택 수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접수 민원 비율을 반영****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에 정비 물량을 가산하여 배정하는 방식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3차 중장기 계획 정비 지역 : 기존(51개) + 신규참여(2개) + 공모(10개)

** 정비 물량 배분 기준 : 주택 가구 수(45%) + 노후주택 수(45%) + 민원 발생률(10%)

이번 계획은 ‘공중케이블 정비 제3차 중장기 종합계획(2026~2030년)’에 따라 순천시와 원주시가 추가로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되며,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26.3월)된 강릉시, 경주시, 김천시, 남원시, 담양군, 세종특별자치시, 안동시, 의정부시, 진안군, 함평군 등 1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정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정비 지역 공개모집은 그간 정비사업 참여기회가 없던 중소규모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매년 10개 지역을 선정해 1년씩 정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되며, 중소도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정비계획에는 정비 이후 발생하는 공중케이블 재난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인입 설비 공용화’,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 등 재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비 방식을 적용하는 ‘공중케이블 청정구역(클린존, Clean-Zone)’ 종합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 효과와 재난립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하여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2024년부터 전국 주요 도심을 대상으로 해지된 방송·통신용 케이블 일제 철거를 추진하여 2026년 2월 말 기준 약 330만 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28년까지는 주요 도심의 해지 케이블 일제 철거를 완료하고, 2028년 말부터는 서비스 해지시 30일 이내 해지된 케이블을 방문 철거하는 주소 기반 철거 체계를 구축·시행하는 등 해지되어 끊어지거나 늘어진 공중케이블로 인한 도시 경관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정부와 정비사업자가 협력하여 정비 지역을 확대한 만큼, 실질적인 정비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겠다"라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이 안전한 통신 기반 시설(인프라)로 관리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신정책관 통신자원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장호 (044-202-6660)
		담당자	사무관	강유신 (044-202-6661)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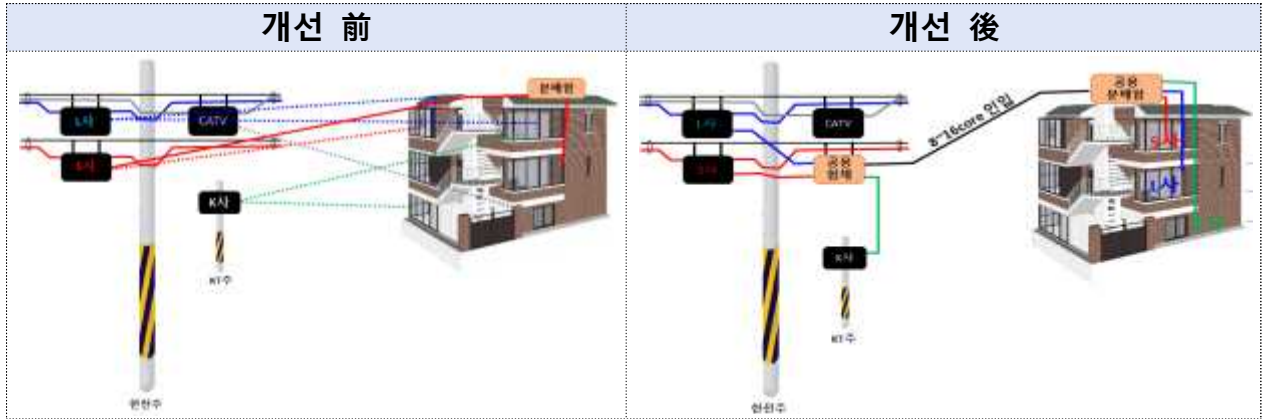
대한민국
지정브리핑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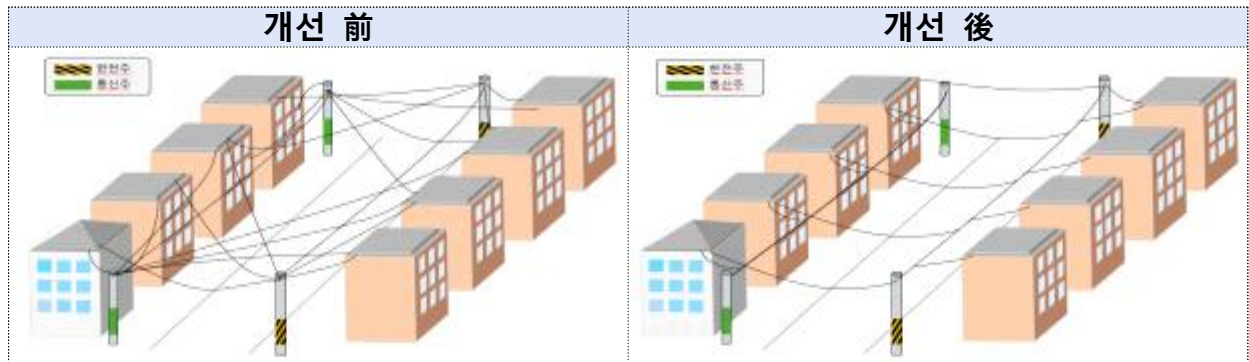
참고

공중케이블 클린존(Clean-Zone) 시범사업 정비방식 설명

- **(인입설비 공용화)** 인입 구간(전주~ 건물)과 가입자 구간(건물인입단자~택내)에 공용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자간 설비 공동 사용



- **(방사형 구조 개선)** 주택가 골목길의 인입케이블 방사형 설치구조 개선을 통해 공중케이블 난립 방지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대



- **(인입케이블 경로 일원화)** 건물 주변 거미줄 같은 인입케이블 난립 해소 및 재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인입경로 일원화 집중정비

